레스토랑에 들어가 주인에게 점포 내에 있는 살아 있는 고양이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식당 주인이 이미 고양이들을 모두 내보내 건물 안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는 냉장고에서 껍질이 벗겨진 고양이를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2005 미스 선전 또한 이번 시위에 참가, 주민들에게 고양이와 개를 먹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식당 주인은 광둥지역에서 고양이를 먹는 것은 전통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며 더이상 고양이고기를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위 주도자는 이 레스토랑이 거리에서 고양이를 도살해 시위를 벌이게 됐다며 이는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인들, 특히 남부지역 사람들은 고양이와 개를 먹는 것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경제발전으로 중국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같은 행위는 일부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시스 / 2006년 6월 18일

국 내 소 식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자, 솔부엉이 새끼들

천연기념물 제324-3호인 솔부엉이 새끼 3마리가 제주시 아라동 삼의양오름 인근 제주경찰학교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된 후 7월 11일 제주시내 한라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새들은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 때 둥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치료 후 제주지역 새 동호회인 '새가좋은사람들'에 의해 방사될 예정이다.

뉴시스 / 2006년 7월 11일

애완견 전용 상자없이 지하철 못탄다

철도공사가 수도권광역전철 구간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의 휴대물품 제한 및 이용객이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는 애완견을 전용 운반상자를 이용하지 않고 데리고 탈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철도공사 광역사업본부(본부장 신승호)는 수도권광역전철(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철도공안 및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활동조를 편성,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 단속 ·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7월 13일 밝혔다.

'철도안전법'과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전철(지하철) 이용객은 무기류 · 화약류 ·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동물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공중 또는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을 휴대할 수 없다.

휴대금지 물품이 아니더라도 길이 · 너비 ·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무게가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휴대가 제한된다.

애완동물의 경우 소음 · 털 · 냄새 · 알레르기 등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용 운반상자(케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휴대금지품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관련법에 의해 최고 10만원의 부가금을 물리거나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유모차와 같이 접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휴대품은 반드시 접어서 휴대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대부분의 전철(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개집표소(Gate)도 폐쇄형으로 돼있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유모차는 반드시 접어 별도로 휴대하고 승차하는 것이 생활화 돼 있다.

이밖에 일부 취객이나 내릴 곳을 지나친 승객 등이 운행중인 전동차 출입문을 억지로 열어 전동차를 비상정차시켜 연쇄 지연을 일으키거나 객실내 비상통화장치를 아무런 용무없이 조작해 승무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안전운행을 저해시키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등 지하철 이용객의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철도공사 이선현 광역마케팅팀장은 "지하철의 안전과 쾌적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용객의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험품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라임경제 / 2006년 7월 14일

국립공원 계곡수 '마시지 마세요'

전국 국립공원 계곡의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총 대장균군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한라산과 경주, 3개 해상공원을 제외한 15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 97개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2005~2006년 사이 97개 중 57개 지점(59%)이 환경기준 1등급 기준치를 초과한 다량의 총대장균군으로 오염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대장균군은 1999년 79개 지점 중 59개 지점(75%)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매년 69~81% 가량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기록돼 다소 개선될 조짐은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계곡이 대장균으로 오염돼 있다.

대장균 기준 초과 지점은 설악산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월악산 6곳, 속리산 5곳, 지리산(남)과 주왕산 · 치악산 · 소백산이 각 4곳, 덕유산과 북한산 · 가야산이 각 3곳, 지리산(북)과 계룡산이 각 2곳, 내장산과

월출산 · 변산반도가 각 1곳 등이다.

내장산(남)과 오대산은 기준 초과 지점이 없었던 반면 계룡산과 가야산은 오염이 제일 심한 3등급 지점도 1곳씩 파악됐다.

공단은 국립공원의 40%가 사유지로서 자연취락 지역과 농경지 등이 다수 분포돼 있어 일상생활 또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계곡수에 유입되고 있으며 평상시 계곡수 유량이 적어 탐방객의 물놀이 등이 대장균 오염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미생물에 의한 영향 등 자연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계곡수의 대장균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계곡수를 그대로 마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고 오물투기, 불법취사, 야영, 계곡내 수영 행위 등을 피서기간내 집중 단속키로 했으며 북한산성 · 송추지구의 집단시설 이주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2003년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이 파악되기도 했으나 2004년 이후 1등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유물질(SS) 등도 측정을 시작한 이후 환경 기준에 미달한 곳은 없다.

연합뉴스 / 2006년 7월 17일

"연예인,정치인들 반려동물을 사랑합시다."

7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중앙홀에서 9시 30분께 열린' 반려동물 보호 사진전' 에 가수 황혜영이 참석해 국내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으로 구성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으로부터 동물사랑 홍보대사 위촉패와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투투 출신의 가수 황혜영이 오랜만에 공식자리에 나서 참석하였으며 이외에도 리아,고영욱,구준엽등이 동물사랑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인 공성진의원,박찬숙의원,이계경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김충환의원 등이 행사장을 찾아 '희생과 공존' 이란 테마의 사진전을 관람했다.

한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주최로 열린 '반려동물 사진전' 은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진행된 행사이다.

프라임경제 / 2006년 7월 6일

W호텔 "애완동물 두고 휴가가지 마세요"

W 서울 워커힐 호텔이 애완동물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웰컴펫' (Weolcom Pet!)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7월 6일 밝혔다.

패키지 가격 17만9000원에 추가 서비스 요금 10만원을 지불하면 애완동물과 함께 방을 쓸 수 있다. 또 애완동물 전용 침대, 각종 애견용품과 식사, W호텔의 강아지 캐릭터 인형 윔피(Whimpy)가 제공된다.

W 서울 워커힐 홍보실 이현주 씨는 "그동안 애완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지 못한 고객들을 위한 패키지" 라며 "애완 동물과 함께 하는 호텔패키지로는 국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패키지는 7월 14일까지 운영되며 하루 3명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패키지에는 아차산 전망의 원더풀 룸 1박과 조식 20% 할인, 각종 시설물 10% 할인 등이 포함된다.

머니투데이 / 2006년 7월 6일

강원대, 합동 봉사활동 올림픽 유치기원 위해 봉평서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30일 평창군 봉평면 일대에서 일일 합동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는 130여명이 참가하며 강원대학교 병원의 의료봉사(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약제과), 강원대학교 동물병원의 무료 가축진료 및 순회진료, 집수리 봉사대의 집수리 봉사 및 상수도 급수 공사, 농가 채소밭 김매기 봉사 등의 활동과 봉평면사무소 앞에서 동사모 회원가입 등의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행사를 진행하였다.

조선일보 / 2006년 6월 30일